

## I. 시작하는 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통치자가 정한 시간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선 절기를 통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통해 먼저 깨달아야 할 것도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에 취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슬픔의 시간에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I. 중심 말씀

### 1. 내 삶의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무교절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본질이 변질되고, 쉽게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선 우리 삶에서도 이런 누룩을 없애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보다 부풀리려 하는 누룩이 없는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묵은 누룩이 없는지 찾아보고, 없애야 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 2.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교절에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은 맛있지 않고, 먹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우리가 순전한 빵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순전한 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자,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달콤하고 맛있는 빵이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 3.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무교절에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성회에 집중하기 위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쁜 삶 중에 성회로 모이는 것, 일손을 놓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선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내 삶이 내 힘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눔 질문) \_\_\_\_\_

## III. 정리하는 말

하나님께선 무교절의 절기를 통해 우리 삶의 누룩을 없애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룩 없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끝으로 처음과 마지막 날 일하지 않고 성회로 모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찬325)

-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 (4)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길로 가지 맙시다

###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